지금 마음에 이미 모든 것 있어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㉟ 道

"여러분, 제방에서 말하기를 닦아야 할 도(道)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 하나니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다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뭐가 모자라며 뭘 고쳐 보태야 한단 말인가?

못난 후학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들판의 여우같고 도깨비 같은 이들의 허튼말을 믿고 사람을 얽어매 놓고 말하기를 '이치와 실천이 일치하고 몸과 입과 뜻의 삼업(三業)을 잘 보호하고 아껴야만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봄날의 가랑비처럼 흔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에 대해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도를 닦는다고 하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삿된 경계만 다투어 일어나나니 지혜의 칼을 꺼내 들면 아무것도 없으리라,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둠이 밝아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옛사람은 또 '평상심이 도'라고 하였느니라.

대덕들이여, 무슨 물건을 찾는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이 없는 사람(無依道人)'이 역력하고 분명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조사와 부처와 다름없기를 바란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보아 잘못될까 의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을 살아 있는 조사의 마음이라 하느니라. 만약 다름이 있으면 본성과 현상이 다른 것이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현상도 다르지 않느니라."

임제의 독설 같은 말이 연이어 나온다. 닦아야 할 도가 없고 깨달아야 할 법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다. 지금 쓰고 있는 마음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도와 깨달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으니 더 이상 찾으려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수행을 잘해야 도를 이루고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도 닦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깨달음에도 관심 두지 말라는 투의 말이다. 이른바 닦음이 없이 닦는(無修而修)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닦되 닦음이 없다(修而無修)라고도 표현된다. 이런 경우를 무위심(無爲心)이라 한다. 무위심으로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함이 없는 것이다. 유위심(有爲心)에서는 시비(是非)를 논할 수 있으나 무위심에서는 주객이 나눠진 상태에서 경계를 의식하며 일으키는 어떤 시비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는 말은 〈전등록〉에 마조(馬祖)가 한 말로 나와 있고, 그 뒤 〈벽암록〉의 남전과 조주의 문답에도 나오는 말이다.

마조도 이렇게 말했다.

"도는 닦을 것이 없다. 평상심이 도일 뿐이다. 무엇이 평상심인가? 꾸밈이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취함도 버림도 없으며, 연속되거나 단절됨도 없고, 천하거나 성스러움도 없는 것이다. 다만 지금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행위가 모두 도이다."

〈벽암록〉과 〈무문관〉에도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조주가 스승 남전에게 도를 물었을 때의 대화로 소개되어 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이니라."

"그러면 닦아가는 방향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으면 어긋나느니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알겠습니까?"

"도는 아는 데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道不屬知不知) 안다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요, 모른다는 것은 무기(無記)일 뿐이다. 참으로 도에 사무쳤다면 툭 트여 막힘이 없어 시비할 것이 없느니라."

이 대화 끝에 조주가 크게 깨달았다.

〈벽암록〉에는 이에 대해 무문(無門)의 송이 붙어 있다.

春有百花秋有月 봄에는 온갖 꽃이 피고 가을엔 달이 밝고 / 夏有涼風冬有雪 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흰 눈 / 若無閑事掛心頭 마음에 부질없는 것 걸려 있지 않으면 / 便是人間好時節 이것이 인간의 좋은 시절이라네 〈조계종 고시위원장〉

사무량심과 반야지혜 함께 닦는 보살



세상 속 경전읽기

㉟ 지혜와 자비

절에 들러 각 전각을 돌며 참배를 하다보면, 전각 기둥의 주련(柱聯)이 눈길을 끈다. 주련은 전각을 장식하는 역할과 함께 참배객 또는 관광객에게 불교사상의 일단을 드러내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이다. 그런데 주련의 글귀는 으레 한자로 새겨져 있다. 한자세대가 아닌 영어세대들은 읽을 수가 없다. 해서체[楷書體, 정자체(正字體)]가 아닌 경우에는 한자세대도 잘 읽지 못한다. '읽을 수 없는 캐치프레이즈'는 현대와의 접점이 취약한 불교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절에 따라 간혹 주련 글귀의 정자체와 한글번역을 주련 옆 눈높이에 곁들여 붙여놓은 곳이 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가족이 그 앞에 서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으며, 어린이가 낯선 단어를 물으면 부모가 아는 만큼 더 쉽게 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외국인 친구에게 열심히 설명해주는 젊은이도 볼 수 있다. 각 절마다 이런 조그만 친절을 베푼다면, 국민의 정서함양과 불교홍포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영어번역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이겠다. 대웅전 주련에서 자주 보이는, 〈석문의범(釋門儀範)〉이 출처인 글귀 하나를 소개한다.

"부처님 몸 시방(十方) 세계 두루하시고, 삼세(三世)의 부처님 모두가 그러하시네. 광대한 서원(誓願)의 구름 항상하여 다함이 없고, 넓디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여 다 밝히기 어렵네." [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切同 廣大願雲恒不盡 汪洋覺海渺難窮] 〈釋門儀範 諸佛通請 香華請 中〉

부처님은 무량한 수명[無量壽]과 무량한 광명[無量光]으로, 시방삼세의 시공(時空)에 걸리지 않고 편만(遍滿)하면서, 무상정등정각자(無上正等正覺者)로서 무변중생(無邊衆生)을 다 건지겠다는 홍서(弘誓)를 갖추고 계시다. 네 번째 구의 '묘(渺)'자는 '아득함'을 뜻한다. '아득함'은 무한소[無限小. 더할 수 없이 작음]이자, 무한대[無限大. 한없이 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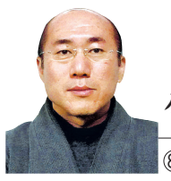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구류중생(九類衆生)을 모두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할 서원을 지니고 제도하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생이 아상(我相) 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당연히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온갖 중생들의 종류인, 알을 깨고 나온 생명 · 태에서 낳은 생명 · 습한 곳에서 생긴 생명 · 변화하여 생긴 생명 · 모습 있는 생명 · 모습 없는 생명 · 생각 있는 생명 · 생각 없는 생명 ·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생명들을, 내(보살)가 모두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無餘涅槃]에 들게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은 한 중생도 제도 받은 바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ātman] · 사람이라는 관념[pudgala] · 중생이라는 관념[sattva] · 생명이라는 관념[jīva]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곧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金剛般若波羅密經 T0235_.08.0749a05-a11〉

보살은 자비를 비롯한 사무량심(四無量心)과 반야지혜(般若智慧)를 함께 닦는다. 자비는 내(보살)가 다른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할 때 완성된다. 반야지혜는 '제법(諸法)'의 체계적인 관조(觀照) 곧 선정을 통해, 아견[我見, 내가 있다는 견해]이라는 미망(迷妄)을 벗어난 지혜이다. 자비는 나[我]를 무한대로 확산해 가면서 모든 중생이 나와 동체(同體)임을 구현하는 것이고, 지혜는 나[我]를 무한소로 축소해가면서 아공법공(我空法空)을 증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되,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어야 보살이며, 이러한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닌) 도리는 '아득하여 다 밝히기 어려운 것[渺難窮]'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㊶ 닦음의 길 21

절 수행, 아상 소멸 프로젝트

등산을 하다 보면 산행은 운동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어떤 이들은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하려고 산에 가곤 한다. 처음에는 복잡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르막이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뭔가를 정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 산을 오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생각이 텅 비워지는 무념(無念)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상에 오르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정리가 된다. 그저 땀을 흘렸을 뿐인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산행을 하면 마음 정리가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한 무념에 있다. 땀을 흘리면서 복잡한 생각, 번뇌가 모두 텅 비워졌던 것이다. 그렇게 고요한 마음이 되면, 지금의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산행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절 수행 역시 산행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절 수행을 시작할 때는 뭔가 생각을 할지 몰라도 100배, 1000배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무념의 상태가 된다. 그렇게 절 수행을 마치고 나면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고요한 상태가 된다. 절은 무명(無明)으로 찌든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心身雙修) 수행이다.

절 수행이 지금처럼 대중화된 것은 아무래도 성철(性徹, 1912~1993) 선사의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선사가 3천배를 해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어쩌면 선사를 찾아온 사람은 3천배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절을 하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번뇌가 사라졌을 테니 말이다. 2000년에는 법왕정사에서 오랫동안 일반인들과 함께 절 수행을 해온 출가사문이 〈절을 기차게 잘 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오늘날 절 수행의 위상은 한 단계 올라가게 되었다. 그동안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인식되었던 절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수행체계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절 수행은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절의 의미를 공경(敬)과 굴복(伏) 두 가지로 압축하였다. 먼저 절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공경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 수행은 본래 부처인 참 성품을 공경하는(恭敬眞性)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절은 무명을 굴복시키는(屈伏無明) 수행이다. 절이란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누군가에게 예를 표하는 행위다. 절을 하심(下心), 즉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절은 번뇌, 망상의 껍데기를 벗겨내고(伏) 본래의 참 성품이라는 알맹이를 드러내는(敬)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공경과 굴복이 가능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념이 되기 때문이다. 무념(無念)이라고 할 때 마음(念)이란 다름 아닌 번뇌, 망상, 삼독, 무명 등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아상(我相), 즉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 절은 단순히 자신의 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낮추는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 수행이 잘 되면 '나'라고 하는 상(相)이 완전히 소멸되어 본래 무아(無我)임을 깨칠 수 있는 것이다. 깨침이라는 불교의 본래 목적에 절 수행이 부합된다는 뜻이다. 절 수행이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처럼 절 수행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내가 왜 절을 하는지, 절 수행이 나의 실존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절 수행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절은 아상을 제거하여 무아를 깨치기 위한 수행인데, 오히려 '나는 3천 배를 몇 번 했다'는 아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아상으로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춘다면, 절 수행으로 건강을 얻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